

코로나19 유치원·어린이집 대응체계 점검 및 현황 분석¹⁾

최윤경 연구위원

2020년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 취약한 높은 ECEC 이용률과 접근성, 공적 돌봄체계의 확충으로 성장과 확대선상에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서비스와 정규과정의 운영이 크게 위축되었다. 강화된 소독 및 방역 체계 하에서 긴급돌봄과 제한된 교육·보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의 유아교육·보육의 운영 방향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감염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직원의 고용 유지 및 반/학급 구성의 변화, 교육·보육 과정과 긴급돌봄의 운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쟁점이 있었는지 정부의 대응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통해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화 된 감염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격차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완 사항을 짚어보았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인 확산 예방과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와 지원을 시행하였다. 약 8개월이 경과한 9월 시점 지역별 감염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3, 4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팬데믹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 내재된 이슈와 향후 대응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 된 체제에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보육의 조치와 대응, 교육부의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의 조치와 대응에는 공통점과 함께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가.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대상 조치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 대응 지침 이후,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대응지침과 요령을 추가로 배포 및 안내하였다. 8월 기준 전체 5판에 걸쳐 대응지침을 배포하였으며(표1 참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교육부 주요 조치

1)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 2020)의 유치원·어린이집 대응 부분을 정리한 내용임.

조), 어린이집 소독과 방역에 관한 기준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부처 담당부서와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매일 브리핑과 보도자료/지침 배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준하여 지자체/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어린

이집을 대상으로 추가 지침과 안내자료를 보완, 배포하였다.

1) 어린이집 대응지침 배포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팬데믹 상황 이

〈표 1〉 어린이집 대응지침

단계	일시	개 요	내 용
	1.27	어린이집 초기 대응요령	초기 대응요령 및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
	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대응요령 긴급 배포	전면 휴원 실시, 출입제한 강화, 방역책임자 지정, 물품지원(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통한 자체 방역관리 실시. 어린이집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 중국 후베이성 방문시 2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 자체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 출석으로 인정, 보육료 지원
주의→경계 (1.27)	2. 5	어린이집 소독 기준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소독 지침(평시 및 소독/감염병발생(유행시) 구분) 안내
	2. 3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배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 대응지침 배포(중수본)에 따른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배포 * 어린이집 대응요령 추가 안내(2.6.)
	2.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예비비 확보를 통한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대응요령과 방역지침 이행 모니터링 중으로, 안심하고 어린이집 이용하도록 안내
경계→심각 (2.23)	2.24	-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Ⅱ판) 배포	위기단계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Ⅱ판 배포
	2.27	-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Ⅲ판) 배포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범위 확대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Ⅲ판 배포
휴원연장 (3월)	3.19	-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Ⅳ판) 배포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보완 배포 - 접촉 최소화,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 등 방역 강화, 구입이 어려운 방역물품(마스크) 현물 지원
휴원장기화 (4월) 생활속 거리두기 (5.6) 재등원 (6.1)	5.27	-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Ⅴ판) 배포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근거하여 대응지침 수정·추가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체계 구성,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기준 마련, 등원 및 출입 시 관리 강화, 재개원 전 조치사항 재점검
	5.29	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전국 단위 휴원 해제, 지역별 개원·휴원 결정으로 전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휴원 연장 휴원 연장 지역 긴급보육 계속 실시 매일 2회 교직원 및 아동 대상 발열 체크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 확진자/접촉자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 일시폐쇄(출입금지) 아동 마스크 의무사항 아니나, 착용 권고
	7.21	-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휴원지역도 감염예방 관리 적용 및 등원·출근 관리 강화
	8.31	(Ⅴ-1판, Ⅴ-2판) 배포	사회적거리두기단계에 따라 적용하되, 지역별 상위단계 시행 가능
수도권 2.5단계 시행	8.28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휴원) 시행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휴원 권고) 이후, 어린이집 휴원과 긴급보육 이용 최소화(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외부인출입/집합 교육 금지.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교대근무). 가정돌봄 콘텐츠 안내 (EBS,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보도참고자료(2020.1.27~8.28) 및 코로나19 어린이집 대응지침(I~V-2) 재구성

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 어린이집용 대응지침(1~5판)과 소독 기준 마련, (2) 일시 폐쇄·휴원 기준과 보육공백 방지 조치, (3) 어린이집 운영 안내(휴원 실시와 시간제보육 운영 관련),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4) 어린이집 지원을 공표하고, (5) 어린이집 평가 및 교직원 교육 진행에 대해 공지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수준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에 준하고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²⁾.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팬데믹 상황 이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 어린이집용 대응지침(1~5판)과 소독 기준 마련, (2) 일시 폐쇄·휴원 기준과 보육공백 방지 조치, (3) 어린이집 운영 안내(휴원 실시와 시간제보육 운영 관련),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4) 어린이집 지원을 공표하고, (5) 어린이집 평가 및 교직원 교육 진행에 대해 공지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수준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에 준하고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³⁾.

어린이집 휴원 조치와 함께 실시된 긴급보육의 경우, 대응지침 1판과 안전돌봄 지원 안내⁴⁾ 등을 통해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의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고 개별 가정의 돌봄부담이 커짐에 따라 긴급보육의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10.0%(2.27), 28.4%(3.23), 55.1%(4.23), 72.7%(5.29)⁵⁾).

이후 8월에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집단감염이 전국 대유행의 확산으로 위험수준이

고조됨에 따라,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하도록 등원 제한 조치를 하였다⁶⁾. 감염위험 수준을 반영한 적절한 단계별 대응 조치를 고려하더라도 수요자 부모의 이용이 제한되는 돌봄공백의 발생과 아동의 보육·교육 활동 제한, 그리고 교직원의 대응과 기관 운영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2)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보육공백 방지 조치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혹은 교직원들이 확진판정을 받거나 접촉자인 경우에 대하여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을 안내하였다(표2 참조). 휴원 어린이집은 반드시 긴급보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대구·경북지역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집단 휴원에 따라 발생한 보육공백 방지 조치와 휴원 어린이집 돌봄 현황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였다.

2월 26일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약 5차에 걸쳐서 휴원 기간을 재연장하였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이용률 상승으로 인한 추가 대응지침과 가정통신문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시간제 보육반 운영을 중단하였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 등원 시 독립반 편성, 접촉 최소화를 위해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거리를 확보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마스크와 소독제 등 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시 보육료와 인건비, 수당이 정상 지급되도록 하였다⁷⁾.

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4. 27). 김강립 차관, 어린이집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격려

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4. 27). 김강립 차관, 어린이집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격려

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5. 29). 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8. 28).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7)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4. 22).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 사항 점검한다

〈표 2〉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등 운영 기준 안내

일시	개요	내용
2. 3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	재원아동 및 종사자 등이 신종코로나감염증 확진판정을 받거나 접촉자인 경우 등 어린이집 일시 폐쇄 및 휴원 기준 안내 * 휴원 어린이집은 반드시 긴급보육계획 수립 및 실시
2.12	변경 안내	감염병 관리 체계상 일관성 확보, 보육 공백 방지 등을 위한 기준 변경
2.19	보육공백 방지 조치 안내	대구·경북지역 내 어린이집 일시폐쇄 또는 집단 휴원에 따른 보육공백 방지 위한 긴급보육 운영 등 조치 안내
2.23	휴원 어린이집 조치 필요사항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어린이집 돌봄현황 파악 등 조치 필요사항 안내
3. 2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준 재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폐쇄 시설이 증가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집 일시 폐쇄 기준 재안내 - (일시폐쇄)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자이거나 접촉자인 경우 일시폐쇄(출입금지) 조치 - (휴원) 2.27.(목)~3.8.(일) 10일간 전국 어린이집 휴원하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0). 코로나19 어린이집 조치사항(I-III) 재구성.

3) 어린이집 인건비·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인건비 현원기준 완화,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 특례,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완화,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 등을 통해 어린이집을 지원하였다(표3 참조). 교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휴무 시 근무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도 어린이집 현원 감소 및 미입소 시 인건비 지원 적용 기준 유예,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실적과 관계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출석 일수에 따른 구간결제 미적용, 대체교사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장보육교사 복무와 임면관리 안내, 코로나19로 출석아동 감소 상황에서 급간식 재료비 최저기준 적용과 절감분 사용을 안내하였으며, 휴원기간 보육료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교직원의 복무지침이 준수되도록 하고 휴원 기간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2월 실시 예정이던 어린이집 현장평가를 연기하고 평가유효기간을 연장

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등 집합교육 자제 및 연기를 권고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 장기 미종사자들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어린이집에서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예방 관리와 보호체계 및 교대근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소독·방역(매일 2회이상 발열체크 등)과 등원/미등원 아동에 대한 가정돌봄지원 및 모니터링과 같은 업무가 부가됨에 따른 교직원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의 연장과 가정내돌봄의 권고로 어린이집 등록을 포기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수령하는 아동이 증가하여 어린이집의 기관 운영과 교사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나. 교육부 - 유치원 대상 조치

교육부는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는 학사운영 위주의 조치를 취하고, 교육청 및 자자체와 협의하여 초·중등학교 대응과 연계된 대응

〈표 3〉 어린이집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구분	일시	개 요	내 용
교직원 수당 지급	1.28	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완화	교직원 수당 지급 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유에 따른 휴무일을 근무일로 포함
인건비 현원 기준 완화	2. 3	인건비 현원기준 완화 및 유급휴가 처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 현원기준 적용 유예 및 어린이집 일시 폐쇄·휴원 시 유급휴가 처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격리된 보육교직원, 휴·폐원 조치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경우 해당 기간 유급휴가 처리
보육료·인건비 지원 특례	2.26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 안내	전국 어린이집 휴원 및 코로나19 관련 대응조치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 특례 추가 안내
시간제보육 기관	2. 3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완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 (별점기준 완화) 중국 방문 등으로 시간제보육 이용예약 취소 시 무벌점(1.28)
인건비·운영비 지원	2.25	-벌점부과기준 추가완화안내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한 시간제 보육 이용예약 취소 시 벌점 부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벌점 기준 추가 완화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1.28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출석 일수에 따른 구간결제 미적용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 시에도 출석으로 인정
	2.19	-기준 재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보호자 안내 독려
대체교사 지원	1.29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완치 시까지, 보육교사의 중국 방문 등의 경우 최대 14일간 대체교사 지원
	2.24	-대체교사지원기준 추가특례	확진자는 치료 및 완치 시, 업무배제자는 업무배제 종료시, 그 외 어린이집 자체 판단 업무배제 대상은 최대 14일까지 * 코로나19에 따른 파견 곤란한 경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급여 지급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0). 코로나19 어린이집 조치사항(Ⅰ~Ⅲ) 재구성

방안을 강구하였다. 감염위험발생 이후 교육부는 유치원의 개학을 4차례 이상 연기하고 이후 단계적인 등교수업과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출석의 인정, 등교일수, 교육콘텐츠의 마련 등 교육과정 운영과 방역을 위한 추가 전문 지원인력의 배치에 대한 계획과 기준을 적용하였다.

1) 유치원 학사운영 관련 조치

교육부는 2월 23일 유치원의 개학을 1주일 간 연기하였으며(1차 개학연기), 이후 3월 2일과 3월 17일 각 2주씩 추가 개학 연기를 하였고(2, 3차 개학연기), 3월 31일 4차로 전국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결정을 내렸다(표4 참조). 이는 유아의 발달 특성과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온라인 개학이 불가능하고, 등교 개학을 할 경우 감염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를 지원하였다.

5월 4일 교육부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교수업 방안’을 통해 유치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거리두기 시행 후 2주 뒤인 5월 20일로 발표하였다. 이는 유아의 원격수업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학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른 교육격차의 문제, 가정내 돌봄부담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후 5월 7일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등원수업이 곤란할 경우 유아 대상의 학습 지원과 출결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등원이 중지된 유아와 고

위험군 유아에 대해 출석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도움자료를 지원하고 원격수업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후 5월

24일에는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유치원 등원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의 개학을 준비하는 내용을 발표

〈표 4〉 유치원 학사운영 관련 조치

일시	구분	내 용
2.23	전국 유치원 개학 연기 결정 (1차 개학연기, 1주간)	2020. 3. 2.에서 3. 9.로 개학 1주일 연기 결정
3. 2	전국 유치원 개학 연기 결정 (2차 개학연기, 2주간)	2020. 3. 9.에서 3. 23.로 2주일 추가 연기 결정
3.17	전국 유치원 개학 연기 결정 (3차 개학연기, 2주간)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 - 전국 학교, 3월23일에서 4월3일까지 휴업기간 연장 -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씬'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3.31	전국 유치원 개학 연기 결정 (4차 개학연기, 무기한)	유치원생의 발달 단계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온라인 개학이 불가능하며, 등교 개학 시 감염 통제 어려운 점을 고려 - 학부모 및 유치원 대상 개정 누리과정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 안내
5. 4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유치원 등교수업을 생활속거리두기 시행 이후 2주 경과한 5. 20.(수)로 결정 - 원격수업 적응이 어렵고,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 - 등교 수업 대비 학교 방역 준비
5. 7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등원수업 곤란할 시 원격수업을 통한 유아의 학습 지원과 출결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등원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 및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 마련(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지원)
5.24	유치원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개학 준비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돌봄) 탄력적 운영 - 지역 및 유치원 여건에 따라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하여 운영 유치원 원격수업 지원 -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제작·공유하고, EBS 교육방송 콘텐츠 6월 연장 제공 계획 유치원 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 - 교실 환경 조성 및 통학버스 차량 내 거리 두기 방안 등 마련
등교수업 현황 자료(7. 9)		(유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학생 미등교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
7. 9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 2학기 코로나 대비, 방역·학사일정·원격교육환경 협력 논의 -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추진 -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포럼 및 간담회 공동개최
8. 11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학습)-방역-돌봄의 통합 안전망 구축 - 2021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감염병/방역 전문가 배치 - <학습격차> 줄이기 위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수석교사의 온오프라인 컨설팅, 등교/원격수업 방식의 집중지도 및 2학기부터는 소그룹별 대면지도 - 교사 수업준비에 전념하도록 원격수업 인프라구축과 테크매니저 배치 추진
8. 25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전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8.18 ~ 9.11) 및 원격수업 전환. 수도권 외 지역 밀집도 2/3 유지 강력 권장, 시도교육청/학교에 방역전문가와 지원인력 배치
8. 27	5개부처,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발표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7. 2) 일환으로, 디지털 공동체 실현-4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온·오프라인 융합 미디어교육 인프라 전국 확대-유아 미디어교육 강화/놀이형 프로그램·교구 개발 누구도 미디어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0. 2. 23 ~ 8. 27). 코로나19 유치원 학사운영 대응 재구성

하였고, 여기에는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 원격수업 지원, 통학버스 차량 내 거리 두기 방안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7월 9일 늘어난 휴업기간을 반영하여 유치원 수업일수(연간 180일)를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원격교육 환경 구축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하였다. 8월 11일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방역-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표하였고,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감염병 및 방역 전문가의 배치와 원격수업 준비 지원 및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멘토링과 컨설팅 계획을 포함하였다. 8월 25일 감염 전국 확산의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정원의 1/3 규모를 유지하던 수업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한 밀집도 최소화 유지가 강력 권장되었다.

8월 27일 강화된 밀집도 관리와 원격수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위드코로나 상황에서의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과 유아 미디어교육, 놀이형 프로그램과 교구 개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서비스 계획을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표하였다.

2. 유치원·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현황⁸⁾

부처의 대응 조치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위험 심각단계였던 3월말~4월초 시점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기관 대응 현황을 일

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유치원 186개원, 어린이집 319개원이 설문에 참여하여 총 505개소의 응답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유형 및 규모, 지역과 같은 기관 분포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결과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직원 수의 변화와 배치, 근무패턴과 같은 운영상의 변화와 감염위험 심각단계에서의 전반적인 대응 현황과 돌봄공백에의 기여, 그리고 재원 아동과 교직원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 관해 살펴보았다.

가. 휴원·휴업 이후 교직원 배치 및 근로여건의 변화

1) 휴원·휴업 이후 교직원 수 변화 및 이유

2월말 코로나로 인한 휴원·휴업 조치 이후 퇴사한 교직원 수를 조사한 결과, ‘교직원수 변화 없음(유치원 67.9%, 어린이집 49.3%)’, ‘교직원수 줄어듦(유치원 19.4%, 어린이집 36.0%)’로 조사참여기관 중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에서 퇴사한 교직원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2월은 개학 전 교직원의 이동이 있는 시기임을 고려하여도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의 재원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을 대상으로 2월말 이후 교직원이 그만둔 이유를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교직원 개인사유(유치원 14.0%, 어린이집 14.4%)’,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9.7%, 11.0%)’, ‘입학/등록 취소로 인한 반/학급 조정으로 퇴사(5.4%, 15.0%)’, ‘전업(1.6%, 2.2%)’,

8) 제시된 결과는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최윤경 외, 2020)에서 3월말~4월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임. 조사에 참여한 기관(원장)의 응답을 정리한 것으로, 기관 분포를 고려한 비례 표집이 아니며 결과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기 대응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표 5〉 휴원·휴업 이후 퇴사한 교직원 수(3월말~4월초 시점)

단위: %(개원)

구분	변화없음	줄어듦	늘어남	계(수)
유치원	67.9	19.4	12.7	100.0(165)
어린이집	49.3	36.0	14.7	100.0(300)

‘기타(2.7%,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휴원·휴업 조치 이후 재원아동의 입학과 등록 최소로 반/학급이 축소되어 교직원이 퇴사했다는 응답이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에서 좀 더 많았다.

2) 휴원·휴업 기간 교사 배치

휴원·휴업으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 기간 동안 교사의 배치와 근무 현황은 어떤지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모든 교사가 ‘정상근무’를 한다는 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치원의 경우 ‘교대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유급휴가’, ‘당직교사제’의 순으로 응답되었다(표6 참조). 어린이집은 ‘정상근무’ 다음으로 ‘유급휴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무’, ‘당직교사제’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교대근무와 재택근무의 비중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 단축과 유급휴가 외에, 무급휴가의 사용은

조사참여기관의 약 5%, 11%로 응답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교사의 근무패턴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혀+거의) 변화가 없다’ 38.7%, ‘보통’ 6.7%, ‘(어느정도+매우) 변화가 있다’ 54.6%로 교사 근무패턴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3.21점/5점척도).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유치원 57.2%, 어린이집 53.0%로 나타났다(표7 참조).

3) 휴원·휴업 기간 교사 업무 수행

3월말~4월초 휴원·휴업 기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수행에 대해 제시된 10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원장응답), 전반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긍정응답이 80~90% 내외로 높았다(표8 참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등원 아동에 대한 감염예방과 관리를

〈표 6〉 휴원·휴업 기간 교사 근무 배치 현황

단위: %, (개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정상근무	53.8	58.3
교대근무	43.0	28.2
재택근무	17.2	11.3
당직교사 위주로 출근	20.4	25.7
근로시간 단축	24.7	31.0
무급휴가 사용	4.8	10.7
유급휴가 사용	21.5	38.2
기타(기관 부분 운영 등)	2.7	3.4
응답기관수	(186)	(319)

주: 중복응답 문항임.

〈표 7〉 휴원·휴업 기간 교사 근무패턴 변화(5점척도)

단위: %, 점, (개원)

구분	변화가 전혀 없다	변화가 거의 없다	보통	어느정도 변화가 있다	변화가 크다	평균	응답기관수
전체	22.4	16.3	6.7	26.8	27.8	3.21	(478)
유치원	12.8	23.3	6.7	27.2	30.0	3.38	(180)
어린이집	28.2	12.1	6.7	26.5	26.5	3.11	(298)

주: 평균은 변화가 전혀 없다(1점)~변화가 크다(5점)로 산출한 결과임.

위한 ‘건강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9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등원아동에 대한 ‘긴급돌봄(교육·보육)의 실시’, ‘신학기준비와 수업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95~97%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놀이 활동 정보의 제공과 감염 및 접촉 상황 등에 관한 아동 건강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놀이활동 정보의 제공은 유치원에서, 아동건강 모니터링은 어린이집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휴원·휴업기간 동안 교직원 자체연수와 상호협의를 대해서는 약 86~88%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원·휴업기간 시간 활용을 통해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긍정응답이 79~82%로 나타났다. 휴원·휴업기간 온라인 연수와 보수교육과 같은 교육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은 73~7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감염위험 심각단계의 휴원·휴업 초기에 등원 아동의 수가 줄어들어 따라 수업준비와 긴급돌봄과 교육·보육·돌봄 과정의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원·휴업기간 교사들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어린이집 약 30%, 유치원 약 18%로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대상 FGI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감염위험 예방을 위한 소

〈표 8〉 휴원·휴업 기간 교사 업무 수행(5점척도)

단위: %, 점, (개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4+5	평균	응답 기관수	4+5	평균	응답 기관수
신학기준비와 수업준비	96.7	4.67	(181)	93.6	4.82	(314)
긴급돌봄(교육·보육) 운영	96.2	4.80	(182)	95.1	4.76	(305)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수칙 적용/준수	98.9	4.87	(180)	98.0	4.90	(300)
미등원 아동을 위한 놀이활동 정보 제공 등 가정내양육지원	80.0	4.24	(180)	74.4	4.10	(304)
미등원 아동의 건강 모니터링 및 감염·접촉 상황 등 파악	78.8	4.17	(175)	88.4	4.43	(310)
교직원 자체 연수 실시 및 상호 협의	87.8	4.46	(181)	85.7	4.42	(307)
교사들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음	18.1	2.27	(177)	29.5	2.55	(308)
시간 활용을 통해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함	81.7	4.25	(181)	79.4	4.17	(310)
온라인 연수/보수교육과 같은 교육훈련을 필요로 함	72.9	4.02	(173)	76.1	4.15	(305)

주: 4+5는 어느정도 그러함(4점), 상당히 그러함(5점) 응답률을 합친 결과임.

독·방역 등의 업무가 증가하고 감염위험과 관련 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전문적인 정보와 안내의 부족, 제시된 지침 적용에서 세부적인 운영상의 혼란과 어려움이 언급되었다.

4) 기관운영 및 긴급돌봄의 어려움

기관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 어린이집(45.8%)의 경우 '입학취소'로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원아 감염병 대응·관리'로 나타났다(표9 참조). 유치원의 경우 '재원아의 감염병 대응·관리(37.2%)'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원아 입학취소'로 응답되어 어려움의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정에서 돌봄 중인 미등원 아동 관리와 지원(10.9%)'에 대한 어려움은 세 번째로 응답되었다.

'긴급돌봄 운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등원하는 아동의 마스크 착용과 발열검사 등과 같은 '감염 예방과 건강수칙 이행'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10 참조). 그 다음으로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의 운영(18.9%)'을 어린이집에서는 '교직원 감염예방(18.4%)'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겪

는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유치원 9.5%, 어린이집 17.0%로 차이를 보였다.

5) 감염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감염병 대응에 준비가 '(어느정도+잘) 되어있었다'는 긍정응답이 유치원 70% 이상, 어린이집 80% 이상으로 나타났다(표11 참조). 어린이집에서의 긍정응답이 좀 더 많았다.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지침, 비상연락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질문한 결과, '(어느정도+상당히 잘) 작동하였다'는 긍정응답이 유치원 80% 이상, 어린이집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았다'는 부정응답은 전체 응답 기준 기관 6.5%, 교사 7.6%,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부정응답은 매뉴얼/지침 1.2%, 비상연락체계 0.8%로 나타났다.

〈표 9〉 휴원·휴업 기간 기관운영의 어려움(1순위)

단위: %(개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영)유아 감염병 대응 및 관리	37.2	17.3
교직원 감염병 대응 및 관리	4.5	4.9
원아 입학 취소	27.6	45.8
교직원 유지 및 채용	7.1	4.2
교직원 근태(근무와 배치)	0.6	4.2
긴급돌봄 운영	5.8	3.5
가정내양육 중인 재원아 관리와 지원	10.9	14.4
부모 안내 및 응대	2.6	1.8
교직원 일가정양립 지원(유연근로제 등)	0.6	1.1
기타	3.2	2.8
계(수)	100.0(156)	100.0(284)

〈표 10〉 긴급돌봄 운영의 어려움(1순위)

단위: %(개원)

항 목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아동 감염예방 및 건강수칙 준수	45.0	40.8
교직원 감염예방 및 건강관리	7.7	18.4
소독제 등 물품 구비	10.1	7.9
기관 소독/방역	0.6	1.1
급간식	5.9	5.4
교육·보육 운영	18.9	6.1
감염병 정보/안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0.4
어려움 없음	9.5	17.0
기타	2.4	2.9
계(수)	100.0(169)	100.0(277)

〈표 11〉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준비도 및 대응체계 작동(5점척도)

단위: %, 점, (개원)

구 분	유치원		어린이집	
	4+5	평균	4+5	평균
감염에 대한 준비도				
-기관의 감염병 대비	73.0	3.88	84.8	4.18
-교사의 감염병 대비	71.1	3.78	84.3	4.14
대응체계 작동				
-매뉴얼(지침)	81.9	4.22	93.3	4.50
-비상연락체계	87.1	4.34	95.5	4.59
응답기관수	(176)		(312)	

주: 4+5는 어느정도 준비되어있었다/작동하였다(4점), 상당히 잘 준비되어있었다/작동하였다(5점) 응답률을 합친 결과임.

6) 감염 위기 상황의 대응 전반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시된 항목 중 '준비와 전달이 가장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유치원의 경우 '가정내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지침'과 '긴급돌봄 운영 지침'의 순으로 대응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표12 참조).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내돌봄 아동 모니터링 지침'과 기관 '비용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적으로 가정에서 돌보는 '미등원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의 지침'이 부족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유치원의 경우 휴원기간 교사근무지침과 비용지원, 코로나 감염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 긴급돌봄 시 아동 보호와 교육에 관한 상세지침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월말부터 이루어진 5주 이상의 휴원·휴업 조치와 긴급돌봄의 운영, 기관에서의 코로나 대응 전반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5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표13 참조).

먼저 휴원·휴업 조치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긍정응답이 전체 84.4%로 높게 나타났으며, '긴급돌봄 운영의 돌봄공백 해소 기여'와 '휴원·휴업 기간 기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각 81.0%, 91.9%로 긍정응답이 우세

하였다.

감염대응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응답 80~90%대의 높은 긍정응답률을 보이는 가운데, '감염예방을 위한 취약 아동과 가구 대상의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응답률이 54.5%로 응답되었다. 감염위험 상황에서 휴원·휴업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 체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

원의 관점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응답이 적었다.

'휴원·휴업 기간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과 운영 재개 준비에 대해 긍정응답률이 80~90% 내외로 높게 응답되었으나, '교직원 대상 가족돌봄휴가 등의 적용'에서는 긍정응답률이 50%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준비와 전달이 부족한 부분(1순위)

단위: %(개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매뉴얼/지침	4.6	1.5
코로나 감염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	11.5	3.9
긴급돌봄 시 유아 보호와 교육에 필요한 지침	20.8	17.0
가정내양육 재원아에 대한 모니터링 지침	28.5	30.1
휴원기간 비용 지원	13.8	30.1
휴원기간 교사근무 지침	14.6	8.9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접촉시 유의사항과 조치	3.8	4.6
기타	2.3	3.9
계(수)	100.0(130)	100.0(259)

〈표 13〉 휴원·휴업 조치 및 휴원·휴업 기간 대응 전반에 대한 평가(5점척도)

단위: %, 점, (개원)

구분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2월말 이후 5주 이상의)						
휴원·휴업 조치는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치였다	84.4	4.30	77.8	4.07	88.2	4.43
긴급돌봄이 돌봄공백의 해소에 기여하였다	81.0	4.24	83.6	4.23	79.5	4.25
휴원·휴업 기간 코로나 대응이 적절했다	91.9	4.46	88.9	4.30	93.7	4.55
감염대응						
-물품구비	80.4	4.21	73.5	3.99	84.4	4.33
-소독/방역 실시	93.8	4.75	91.7	4.63	94.9	4.82
-감염예방을 위한 교직원 보호·관리	84.3	4.38	77.9	4.23	88.1	4.47
-감염예방을 위한 아동 보호·관리	88.1	4.49	84.9	4.44	89.9	4.52
-감염예방을 위한 취약 아동/가구 보호·지원	54.5	3.93	44.3	3.68	60.4	4.07
기관운영						
-휴원기간 운영	86.0	4.57	77.2	4.40	90.6	4.67
-휴원이후 운영 재개 준비	87.8	4.63	80.8	4.54	91.3	4.67
-교직원 대상 가족돌봄휴가 등 적용	51.2	4.17	38.8	4.25	57.5	4.13
응답기관수	(505)		(186)		(319)	

주: 4+5는 어느정도 그러하다/잘되었다(4점). 상당히 그러하다/잘되었다(5점) 응답률을 합친 결과임.

7) 코로나 상황 심리정서적 건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우울/스트레스에 변화가 있는지 심리정서적 건강에 대한 원장의 인식을 질문한 결과,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영아 41.2%, 유아 45.0%로 응답기관의 40% 이상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재원아동의 불안/우울/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14 참조). ‘원장과 교사의 불안/우울/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원장 86.7%, 교사 82.2%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재원 아동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교사의 부정적 정서의 증가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시사점

국내 육아분야(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중앙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의 대응 조치를 살펴본 결과, 첫째, 코로나 감염자 발생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감염심각단계로의 격상 조치에 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휴원·휴업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와 동시에 긴급돌봄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단계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급돌봄 운영 하에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안정적

으로 이루어지고 유치원의 경우 원비반환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긴급돌봄의 운영과 교직원의 고용유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학부모 부담 경감과 연관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감염위험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와 지침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감염위험 초기 비등하는 방역관리와 소독에의 요구 대비 감염확산 방지에 대한 상세정보와 관련지식, 안내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지침이 정비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상세지침과 백서가 보완되어 현장에 배포되고 교직원 및 부모, 영유아 대상 교육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긴급돌봄의 운영이 감염위험 단계에서도 원활히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긴급돌봄의 이용률이 상승세를 지속하여 어린이집의 경우 5월말 시점 긴급보육 이용률이 전국 평균 약 72%로 나타났다. 이로써 감염위험단계에서의 긴급돌봄의 의의와 실효성이 제대로 작동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거리두기 단계별로 감염위험의 심각 수준에 따른 보다 세분화 된 긴급돌봄의 운영과 이용 상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내돌봄이 영유아자녀 양육의 주요

〈표 14〉 코로나 상황 심리정서적 건강-불안/우울/스트레스(5점척도)

단위: %, 점

구 분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영아	41.2	3.31	-	-	41.2	3.31
유아	45.0	3.45	46.1	3.43	44.0	3.47
원장	86.7	4.46	83.0	4.40	88.8	4.49
교사	82.2	4.28	79.4	4.25	83.8	4.29

주: 4+5는 어느정도 그러함(4점), 상당히 그러함(5점) 응답률을 합친 결과임.

한 대응방안이 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이용과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기관운영이 어려워지고 폐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이 아동수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추세에 의한 것인지,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가중된 일시적 반응인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프라 변화와 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점이다.

넷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응조치가 이원화 된 체계 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사운영체제로 이루어지는 유치원의 경우 교수학습법 등 교육과정 위주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과 체계가 안정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격차해소의 기준도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다. 수업일수 조정과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등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출석 인정과 학교준비도, 구체적인 온·오프라인 교육·보육·돌봄과정의 운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염위험의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나는 대응체계 상의 쟁점과 주요 방향에서의 차이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취약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침과 지원체계의 부재가 드러났으므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감염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아동/장애아동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개입과 모니터링 및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로 교직원의 감염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고, 단계 및 상황별로 요구되는 업무내용과 근무요건(예: 교대근무, 근로시간단축)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직원의 업무 과중과 함께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재원 아동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또한 약 40%로 응답되었다.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심리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위험으로 인해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동의 혼자 놀이위주로 활동이 진행되며 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이 제한되는 교육·보육 과정의 운영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조기 종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심리방역과 면역력 증진을 위해 영유아의 소통과 상호작용, 신체활동과 바깥놀이가 아동의 관점에서 적정수준 운영될 수 있는 교육·보육·돌봄의 최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일곱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FGI를 통해 국공립기관과 사립/민간 기관 간의 차이도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다. 보건과 방역을 담당하는 추가 인력이 배치되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방역수칙의 준수와 교육과정 및 긴급돌봄의 운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 등 비용지원체계와 재원아동 유지 전략의 차이 등으로 사립/민간 기관의 운영상의 변동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외에, 국공립과 사립/민간 기관의 고유한 특성이 아닌, 과도한 격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와 컨설팅/사후방문지원이 코로나 감염 팬데믹 상황에서 운영되지 않고 중단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평가와 컨설팅 지원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온·오프라인 병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